

## 편식하지 않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국악의 참맛



《클래식 오딧세이》를 내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던 진희숙 씨가 이번에는 국악 책을 냈다. 국악 관련서답게 책 제목도 더없이 한국적이다. 《나비아 청산가자》. 음악에 있어서는 편식을 거부하는 자유로운 행보이다. 그는 《나비아 청산가자》를 통해 자칫 추상개념이 될 수 있는 국악을 자신만의 개성 있는 구수한 입담으로 전한다. 그는 이번 책에서도 자신만의 인문학적 통찰로 우리의 ‘국악’을 설명하고, 나름대로 느끼는 ‘국악’의 의미를 찾았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라는 내셔널리즘의 맹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음악 자체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 그의 분방한 시점이다.

“기존 책들은 제목만 다를 뿐이었거의 똑같은 고정관념에 의해 구성되었죠. 똑같은 국악의 유래를 형용사 하나만 덧붙여 소개하면서 우리 음악이 좋다는 식의 논리만 앞세웠거든요.”

그는 기존 국악 관련서의 한계를 되짚으면서 보다 대중적인 시도를 했다. ‘서툴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준다’는 신사임당의 그림을 표지로 써달라

고 직접 권유했고, 보통 정악을 앞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국악서의 통념으로 고정된 차에 ‘춘향전’ 영화의 미학적인 자료사진으로 일반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다는 욕심에서 산조를 앞에다 두는 모험을 감행했다. 무조건 진지한 방식으로 강요되는 이론 일색의 정의를 싫어하는 그는 ‘음악을 ‘들어서 좋은 것, 편한 것, 감동을 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명창이라고 하는 사람들 음악을 들어 보면 실망스러운 면이 많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활동하는 분들 중에 훨씬 대단한 실력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무조건적 ‘복고풍의 지향’도 지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편견 없이 음악을 듣는 그는 이번 책을 통해 제례의식에서 연주되는 〈문묘제례악〉을 제례의식에 종속된 상징으로 여기며 ‘음악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가사를 초극한 〈가곡〉을 화이트 칼라들의 세계관을 대변한 것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과격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악의 본질은 ‘긴장과 이완’ 이에요. 이것이 국악을 꿰뚫는 특징인데 이것과 함께 가속도를 주면서 점차로 빨라지는 점층구조도 국악이 가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서양음악은 긴장과 이완의 반복이 거의 없거든요.”

학부시절에 서양음악을 전공했지만 국악에 매료되어 대학원에서는 국악을 선택한 그는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음악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한다.

“정통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작업이 주류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무조건 퓨전화한다면 정통 국악과는 동떨어진 것을 국악의 본질로 여기는 것도 문제죠.”

글을 유난히 감칠맛나게 쓰는 진희숙 씨는 지식인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칸트의 철학서, 루소의 《에밀》 등 고전 필독서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아르놀트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와 최영미의 《화가의 우연한 시선》을 좋은 책으로 꼽았다.

“음악의 경우에는 다른 장르보다 유리한 부분이 많아요. 인접 장르와 관련해서 개척할 영역이 많죠.”

진희숙 씨는 ‘요즘에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주부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을 강의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고백하면서 음악 문화 감상층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에 앞장서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주**

취재 김철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진희숙 지음 | 청아출판사 | 240쪽 | 15,000원